

‘이의리 부상 이탈’ KIA, 여전히 깊은 대체 선발 고민

좌측 주관절 굴곡근 염좌 진단
퓨처스팀서 라이브 피칭 단계
김건국·황동하 선발 3전 전패
김사운·윤중현 등도 의문 부호



KIA타이거즈가 좌측 주관절 굴곡근 염좌로 이탈한 이의리의 공백을 좀처럼 메우지 못하고 있다.

김건국과 황동하가 대체 선발로 기용된 세 경기를 모두 패한 가운데 다른 후보군인 김사운과 윤중현 등도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의리는 지난달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2차전 2회말 1사만루에서 문보경을 상대로 초구를 던진 뒤 벤치를 향해 이상 신호를 보내 자진 강판됐다.

당시 투구 수가 55개에 불과했으나 스스로 공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구단 지정 병원으로 이동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진을 실시한 결과 좌측 주관절 굴곡근 염좌 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2주가량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KIA 코칭스태프는 이의리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완벽히 회복해서 돌아오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의리가 재활군에서 복귀를 준비하는 사이 KIA 투수진은 공백을 메우

지 못하고 있다. 이의리가 지난주까지 세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거른 가운데 3전 전패를 기록하며 마운드 약점을 노출했다.

지난달 16일 SSG전과 21일 NC전에는 김건국이 대체 선발로 나섰다. 각각 3.1이닝 3실점, 2.1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고 27일 LG전에는 황동하가 선발 등판했지만 3.2이닝 5실점으로 흔들렸다.

김건국은 올 시즌 7경기(선발 2·구원 5)에서 15이닝을 소화하며 1패와 평균자책점 7.80(14실점 13자책점)을 기록했고, 황동하는 4경기(선발 1·구원 3)에서 7.2이닝을 던지며 1패와 평균자책점 5.87(9실점 5자책점)을 기록했다.

김건국과 황동하를 제외하면 현재 1군에는 유일하게 긴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 자원이 김사운이다. 김사운 역시 올해 퓨처스 팀에서 선발 준비를 해왔지만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김사운은 올 시즌 6경기에 모두 구원 등판해 8.1이닝을 소화하며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6.48(10실점 6자책점)을 기록했다. 김건국과 황동하, 김사운까지 추격조가 모두 격차를 따라잡을 힘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셈.

퓨처스팀에도 불러 올릴 자원이 마땅치 않다. 김현수(3경기 3.2이닝 평균자책점 7.36)와 유승철(2경기 2이닝 평균자책점 13.50)이 각각 지난달 27일과 28일 연달아 말소돼 대체 선발이 예정된 오는 3일 한화전에는 등투가 불가능하다. 임기영도 부상 중이어서 윤중현과 유지성 정도가 콜업 가능하다.



KIA타이거즈 이의리가 지난달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2차전에 선발 등판해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낀 뒤 투수 코치와 트레이너를 불러 자진 강판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3일 한화전에는 황동하에게 한 번 더 대체 선발 기회를 부여할 전망이다. 현재 이의리가 한차례 더 라이브 피칭(타자와 수비를 세워놓고 실제 경기와 비슷한 환경에서 실시하는 투구 훈련)을 소화하며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어서 9일 삼성전 역시 대체 선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감독은 1일 KT전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이의리는 라이브 피칭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다”며 “라이브 피칭을 하고 몸 상태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퓨처스 리그에 출전한 뒤 1군에 올릴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리가 스스로 공을 던지는 느낌 등 모든 부분이 괜찮다고 해야 콜업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하면 미뤄줄 것이다. 열흘에서 보름 정도 걸리더라도 완벽한 상태에서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광주시청 박승우,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 2관왕

R4·R5 개인전서 金·金
R5 단체전에선 은메달



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같은날 R5 SH2 10m 공기소총복사 혼성 단체전에 이명호, 이철재와 함께 출전해 은메달을 추가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승우(사진)가 2024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박승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2024년 한국 장애인사격 국가대표로 국제대회 출전 후 금메달 획득은 처음이다.

박승우는 지난달 25일 R4 SH2 10m 공기소총 혼성 개인전에서 254.2점으로 코발추크 바실(252.7점·우크라이나)을 1.5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승우는 또 지난달 30일 R5 SH2 10m 공기소총복사 혼성 개인전에서 255.6점

박승우는 최근 꾸준한 기량 향상을 보이면서 올해 파리패럴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한국 장애인 사격의 간판 박진호는 R 6 50m 소총복사 혼성 개인전에서 252.3점을 획득해 세계기록(중전 251.9점)을 갈아치우는 등 5관왕에 올랐다.

박승우와 박진호의 활약에 힘입은 한국 장애인사격대표팀은 금 10개, 은 5개, 동 4개 등 총 1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페퍼저축은행, ‘전체 1순위’ 위장 품으며 높이 보장

197cm 최장신 미들블로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트리아아웃 최대어로 꼽혔던 미들 블로커 위장(Yu Zhang·중국)을 품으며 약점인 높이를 보강하게 됐다.

페퍼저축은행은 1일 제주전호텔에서 열린 2024 KOVO 여자부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아시아쿼터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며 위장을 지명했다.

위장은 이번 트리아아웃 측정 결과 신장 197cm, 스탠딩 리치(서서 손을 뻗었을 때 높이) 254cm로 높이에서 강점을 지녔

다. 특히 두 차례 진행된 트리아아웃 연습 경기에서 우월한 신장과 스탠딩 리치를 바탕으로 속공과 이동 공격, 블로킹 등까지 공수에서 모두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최대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 그친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아시아쿼터 드래프트부터 바뀐 규정에 따라 7개 구단 중 최고인 40%의 1순위 확률을 보유했다. 6위 한국도로공사(33.3%)와 5위 IBK기업은행(26.7%)과 함께 추첨을 진행해 페퍼저축은행이 1순위, IBK기업은행이 2순위, 한국도로공사가 3순위가 됐다. 한규빈 기자



여수시 선수단을 비롯한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1~8위 입상 시·군 관계자들이 1일 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에 참가해 순위기를 수여받고 있다.

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 여수시 종합 우승... 7연패 위업

최우수선수상 ‘3관왕’ 황상준

여수시가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7연패 위업을 이뤘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트랙에서 3관왕을 차지한 황상준(영광군)이 차지했고 장려상에 장성군, 모범선수단상에 영암군, 성취상에는 영광군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영광군 일원에서 열린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위대한 영광에서, 펼쳐라 희망의 꿈’을 주제로 22개 시·군에서 21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 5000여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여수시는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7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여수시는 19개 종목에 291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5

만761점을 획득해 순천시를 제치고 가장 많은 총점을 획득했다.

황상준(영광군)은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상준은 육상 트랙에서 남자 400m에서 1분10초15, 800m에서 2분12초97, 1500m에서 4분41초59의 기록으로 모두 금메달을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또 장성군은 장려상, 영암군은 모범선수단상, 영광군은 성취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 주최자인 영광군은 영광스포티움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보치아와 한궁 등 장애인 뉴스포츠 체험부스와 스포츠 재활 체험관, 휠체어 보장구 수리 센터, 정보통신 보조기 등 3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체전TF팀을 구성해 우천 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 경기장 편의시설

을 관리와 함께 관내 숙박 및 음식업소의 관리 감독에 나서 세심하게 손님맞이를 준비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 8332대대에서도 장병 30여명이 자원봉사에 지원해 역도의 원활한 지원을 도왔고, 영광FC 소속 학생 선수 40여명도 축구를 비롯해 육상과 론볼 등에 투입돼 대회 운영에 기여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대회를 마친 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 강종만 영광군수를 비롯한 영광군민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32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에서는 여수시에서 차기 개최지인 장성군으로 대회가 전달됐다. 장성군은 내년 열리는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를 책임진다. 한규빈 기자